

‘전두환 5·18 행적’ 기록 추정 기무사 존안자료 9권이 핵심

국방부 ‘5·18 특조위’ 어떤 문서 살펴야 하나

국방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출범에 따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4대 핵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검찰 등에 따르면 5·18에 대한 조사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이어 4번째다. 하지만, 5·18 당시 발표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여부에 이어 최근 급부상한 헬기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폭격 출격 대기설 등 ‘4대 핵심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4차례 조사에

서도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군 작전체계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5·18 당시 투입된 부대를 중심으로 지원 부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의 한 군사전문가는 “5·18때 공수 부대들은 표면적으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와 31사단의 지휘를 받아 ‘충정 작전’을 펼쳤지만 근본적으로는 특전사 사령부 소속”이라며 “예를 들어 11공수여단 작전처가 내린 특전사 사령부의 지시 사항이 적힌 작전 명령서 등을 보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표 명령자와 헬기사격 여부 등이 담겨있는 작전명령서는

특전사 작전명령서 지휘·통신·전투지원·실시 부문

출동 헬기부대 탑승자·탑재 실탄·명령체계 살펴봐야

‘지휘 및 통신’, ‘전투근무지원’, ‘실시’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상식에 속하는 군부대의 작전 매뉴얼이다.

특히 5개항 중 1~3항이 핵심이다. 1항인 ‘지휘 및 통신’에는 명령체계가 나와있으며, 2항인 ‘전투근무지원’에서는 실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3항 ‘실시’에는 작전에 참여한 부대들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일빌딩에 기관총을 난사한 헬기가 어떤 부대 소속이었던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다. 해당 부대를 알아내 헬기 조종사에게 내린 ‘작전명령’을 찾아 5개항을 다

시 살펴보면 탑승자, 탑재 실탄, 명령 체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당시 출동 헬기 부대를 찾아낸다면 헬기 탑승자의 연락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 대개 창설기념일에 예비역이 모이는 등 강한 유대과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문서상으로 발표명령에 관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탓에, 5·18 당시 통신으로 명령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제 발표 주체는 공수여단이기에 때문에 특전사 주간 회의록이나 1일 상황보고, 기무사 보안계통, 특전사 작전계통 전투상보, 상황일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방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존안자료 1~9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 48권으로 구성된 존안자료 가운데 1~9권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존안 자료는 작전이 아닌 상황 자체를 기록한 문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때 행적이 나와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조위에 참여하는 조사위원들도 일단 국방부의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의 한 조사위원은 “아직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방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느낌이 있다. 이번 특조위 조사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위원은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방부가 가진 자료가 대부분 기밀해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흡한 자료는 단호하게 요청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故 홍남순 변호사 가옥 5·18 사적지 지정

‘광주정신 모태 홍남순 자택 폐가 방지’ <광주일보 2016년 10월14일 6면>지적과 관련, 광주시가 홍 변호사의 자택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고시했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5·18수습위원들과 벌인 ‘죽음의 행진’을 비롯한 일련의 수습위 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광주구속자협의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의 진실규명과 시민들의

의 명예회복 활동에 앞장 섰다.

5·18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은 5·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회와 회의 등을 한 사랑방 역할 뿐 아니라 구속자 석방논의,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했던 곳이다.

광주시는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10월 중 사적지 지정 표시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과 119구조대가 지난 9일 밤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투신한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50대 여성 풍암저수지 투신...극적 구조

야간에 풍암저수지로 뛰어든 50대 여성을 경찰과 119구조대가 극적으로 구조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18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평균수심 3m)에서 A(여·50)씨가 투신해 자살하려는 것을 시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2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빠른 수색에 나서 제3목교 부근에서 자살 시도자를 발견했으며, 119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한 끝에 구조에 성공했다.

신변을 비판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한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서부 풍암파출소 양훈렬 순경은 “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야간인 탓에 자살을 시도한 곳은 물론 자살 시도자도 보이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119구조대와 빠른 협업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할아버지 차로 음주운전 10대, 뺑소니 사망사고

나주경찰은 지난 9일 음주운전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A(19)군을 붙잡았다.

자신의 할아버지 차를 운전하던 A군은 이날 새벽 4시 48분께 나주시 대호동의 한 사거리에서 B(72)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친구 6명을 태우고 할아버지 차량을 운전 중이었다.

A군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 여파로 다친 친구가 “얼굴에서 피가 난다”고 119 상황실에 신고하자, 뒤늦게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드라마세트장 건축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전 장흥군수 실형 선고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사 장진영)은 “지난 8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장흥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 장흥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흥=김용희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전 군수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 꼼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지적 쌓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26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장흥군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 등은 2010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비 가운데 26억 원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보성군청 압수수색 관급자재 구매 비리 의혹

보성군청이 관급 자재 구매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관급자재 발주 등과 관련된 보성군청 계약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집중 구매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학생 놀리고 여종업원 뺨때린 못된 어른

○중학생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20대 편의점 여종업원을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7)씨는 9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중학생 A(16)군에게 “여자하고 자했냐”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던

도중 “어린애들에게 무슨 말이냐”고 항의하는 편의점 직원 B(여·22)씨의 목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까지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는데,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만취한 탓에 추후 재소환한 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플회 1등

비비드아모르
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